



## 사측의 대의원 장악음모 적극 차단하라!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적극 대응논의

노동조합은 20일 충북 보은에서 전국지방본부 위원장회의를 열고 지부대회와 규약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본부위원장들은 사측이 대의원 장악음모를 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오는 24일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적극 대응기로 했다. 또한 오는 2월 2일 지부대회를 개최해 사측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고 집행부 3년차를 힘있게 보위하는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담반을 운영해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졌으나 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개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월 중순 : 디자인 등 보완후 견본품 추가 제출 (직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반영)

○2월말 : 지역본부 견본품 전시 및 ON-Line 의견수렴

○3월초 : 최종 품평회 개최

○3월초 : IP 구매 추진

○4월 ~ 5월 : 제작 및 납품

○6월초 : 착용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월 총력투쟁 등 3개 안건 승인 사회적 교섭권,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건은 유회

### 하계 복제개선 세부추진 일정 확정

하계 복제개선 세부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시는 복제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 : 1차 선정품(3복종 15점)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품평회 개최

☞ 인원:전국 200명 집합 (복제착용 각분야별 지사 4명, 망운용국 2명)

☞ 장소:대전인재개발원 (시간 14:00)

○1/31 : 전문가 5명 초청 의견수렴

○2/1 : 의견수렴 결과 3복종 9점 선정



민주노총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속리사 유스타운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사회적 교섭' 안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다만 2004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승인건,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월 총력투쟁 계획(안)은 가결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노동자들을 비정규로 몰아가는 노동개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2005년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전임자 임금 문제, 신노사관계로드맵 공세 등 민주노총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빈곤층이 400만명이며 일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2005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빈부격차해소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격려사에 나선 민중연대 오종렬 대표는 “노동해방의 대의에 맞춰 사소한 견해차이는 좁히고 대동단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기념식 후 본대회가 시작하자마자 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대지부장 징계 및 지부운영규정 승인 권고건과 IT연맹 승인취소 및 가맹 불승인건이 긴급제안돼 한동안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안건상정을 묻는 찬반 투표결과 두 안건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의 주요사업 방침을 밝히고 빈부격차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자주 평화 통일 실현,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비정규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과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기로 했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직권중재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산별교섭제도와 산별협약 제도화 등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투쟁 및 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우리민족회의 성사와 대중적인 노동자 통일 운동 전개, FTA·DDA 저지

등 시장개방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이 민주노총 모범 조합원 상을 수상했으며 KTF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 중앙상집, 2005년 사업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토론 대원칙과 기초를 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17일(오늘) 회의를 열어 2005년 사업계획 초안마련을 위해 각실처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무처는 ▲투명한 노사관계 확립 ▲완전복지 실현 ▲조합재정자립 기틀 마련 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정책기획실은 집행부 3년차는 고용안정의 정착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 민주화 ▲인간중심의 경영 강제 ▲조직개편 문제해결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조직처는 ▲권역 및 지사별 협의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강화 ▲여성간부 활성화 등에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선전실은 ▲조합간부 의식 강화 ▲온라인 선전 강화 ▲발행매체의 기획성 강화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식위원장은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2005년 사업의 대원칙과 기초를 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조합 2005년 사업계획은 중앙상집 토론과 수련회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초안이 완성되며 3월 중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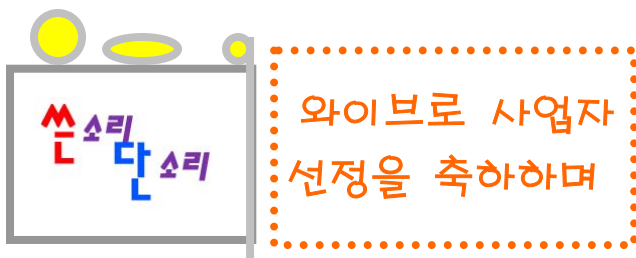
한편,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지진해일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남아시아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 18일 IT연맹 홍보선전정보화 담당자회의 열려 연맹·단위노조간 공동 웹서비스·홍보물 등 동질감 생성 주력키로

IT연맹은 18일 제3차 IT연맹홍보선전담당자회의를 KT노동조합사무실에서 열고 ▲2005년 IT연맹 교육선전실 사업계획 토론 ▲겨울방학 맞아 가족 언론학교 개최 건 ▲IT연맹 선전·정보화 일꾼학교 계획 수립 ▲노동조합 홈페이지 진단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5년 연맹사업으로 ▲콘텐츠 강화를 통한 홈페이지 활성화 ▲연맹·단위노조 공동제작 정기 홍보물 발간 ▲연맹·단위노조간 웹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동질감 생성 ▲홍보선전활동가의 양성 등을 중점으로 두기로 했다.

특히 연맹 및 소속단위노조의 연대와 홍보활동을 위해 공동게시판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5-1-23]

며칠전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에서 1위로 선정되어 사업권을 따냄으로써 주파수 할당 등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휴대인터넷 그리고 DMB 사업의 융합 즉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사업에 큰 힘을 보태준 것이다

사실 KT가 선정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나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SK는 사실 무선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심 사업자선정에 1위가 안된 SK는 와이브로 시장의 수익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얘기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KT의 공격적 시장 점유를 막고자 하는 의도이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한편 기아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비리로 시끄럽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KT는? 물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흠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새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내부에서 빨리 해결하였으면 한다

사도 마찬가지로 사의 문제가 노에 의해 지적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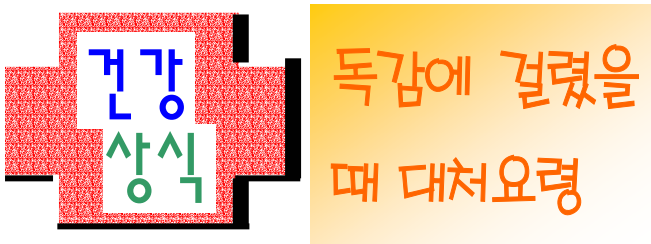
그렇다면 정중히 그리고 엄중하게 사실을 규명해서 노에게 설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밖으로 알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 4주간KTTU

앞으로 전개될 경쟁에서 노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을 시작한 이상 노사가 따로 있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대박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힘을 모으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건강상식>

[출처 : naver건강상식]

### 독감에 걸렸을 때 대처요령

㉠ 심한 육체활동을 하면 자연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고 이때 독감 바이러스가 폐로 흡입된다 따라서 밖에서 들어온 찬 공기는 독감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기도 안의 공기가 차면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쉬우므로 방안의 공기를 가능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 몸 안의 수분이 많으면 기도 점액의 배출이 잘 되고 이것은 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통증이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통제를 복용한다

㉣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생리현상이다 따라서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높은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어 열을 내려야 한다 아스피린 계통의 해열제는 일부 소아에서 라이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대개 3~5일이 지나면 호전되는 느낌이 있고 1~2주 이상이 지나면 완쾌된다 간혹 독감에 걸린 후 고열 등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호흡곤란과 화농성의 누렇거나 초록색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폐렴이 의심되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독감에 걸린 후 48시간 안에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증상에 도움이 된다

### 네티즌 건강수칙

① 가능하다면 컴퓨터의 지속적인 사용시간을 제한 해야 하며 중간중간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② 컴퓨터 책상 의자의 위치와 높이 등을 잘 조절하여 앉은 자세가 편안하도록 한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 흥건한 땀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불편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

③ 컴퓨터 스크린에 실내조명이 반사되지 않도록 한다

④ 컴퓨터를 시작하기 전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 뱃는 방법으로 깊은 호흡을 한다 이어 머리를 서서히 가슴을 향해 내려뜨린 뒤 왼쪽 어깨를 향해 머리를 돌리고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를 향해 머리를 가져간다 이런 동작을 3번 반복한다

⑤ 목 어깨 등 팔 팔목 손 손가락 발의 혈액순환을 위해 20분에 한 번씩 1~2분동안 스트레칭을 한다

⑥ 이상과 같이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박사의 말을 빌리면 컴퓨터 앞에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일이 여러 해 반복되면 틀림없이 여러 형태의 근 골격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 하세요

## 컴퓨터와 손저림

신경 등의 이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자판은 항상 팔꿈치 이하로 한다
- ② 화면은 눈 밑 1도에서 60도 사이로 한다
- ③ 손과 손목팔이 닿는 부위에는 패드를 할 것
- ④ 컴퓨터 책상 밑에는 발을 놓릴 수 있는 공간을 둘 것
- 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것
- ⑥ 작업 중 자주 휴식을 취할 것
- ⑦ 바른 자세로 앉을 것
- ⑧ 이상이 생기면 일정기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부목을 대는 것이 좋다
- ⑨ 통증, 저린 감각이 심할 때는 진통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 ⑩ 아주 심할 때는 수술을 통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증상을 호전시켜야 한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눈과 얼음잔치가  
펼쳐지는  
곳- 대관령

눈과 얼음잔치가 펼쳐지는 곳-대관령

[출처 : <http://www.darotv.com>]

- 대관령 눈꽃축제 - 용평 스키장 - 삼신 황태덕장 - 교통 및 먹거리

눈과 얼음이 없는 겨울!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상상하

기도 싫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이지 최근의 기상이변은 '눈 없는 겨울'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구 온난화' 라는 거창한 수식을 붙이지 않더라도 따뜻한 겨울은 이제 우리의 겨울 풍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라면 그런 걱정은 필요 없을 듯. 바로 강원도 평창의 '대관령'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겨울의 진수를 맛보고 돌아가는 곳 대관령에서 눈과 얼음의 잔치가 열렸다. 다정한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하얀 눈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축제가 열리는 곳은 어디를 가든 흥겹다. 춤과 노래가 있고, 낭만과 추억이 있다. 무엇보다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모습들이다.

어릴적 동네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던 아이는 이제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얼음판으로 나왔다. 썰매타는 법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팽이를 돌려보기도 한다. 잊혀진 겨울 풍경이 되살아나는 곳은 바로 '대관령 눈꽃축제'의 현장이다.

어른들에게는 지나간 추억의 시간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롭게 기억될 시간을 선사하는 곳이 또한 '대관령 눈꽃축제'이다. 이제 대관령을 대표하는 축제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면 찾고 싶은 곳으로 손꼽는 '대관령 눈꽃축제'에서는 얼음썰매는 물론이고 포대썰매를 타 볼 수도 있다.

또한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소발구(소가 끄는 썰매)와 인발구(사람이 끄는 썰매)등 잊혀진 우리의 겨울 놀이를 또한 즐길 수 있다.

눈으로 빚은 조각품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한다. 축제기간이 지난뒤에도 자연적으로 눈이 녹을 때 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니 축제는 놓친 여행자라면 기념촬영한 장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는 것도 좋을 듯.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하이랜드  
1층 눈꽃축제위원회

전화번호 : 033)336-6966 홈페이지 :  
<http://www.snowfestival.net>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는 또한  
용평 스키장이 자리잡고 있다. 포대썰매의 여운  
이 남아있는 여행자라면 용평 스키장안에 있는  
눈썰매장으로 달려가 보자.

포대 썰매와는 또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왕 한 발걸음. 내친김에 스키에 도전  
해 보는 건 어떨까.

용평 스키장에는 초보자 코스가 따로 마련되  
어 있어서 초심자라도 쉽게 스키를 배울 수 있  
다. 설원을 질주하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시  
간이 될 수 있을 것. 이밖에도 스노보드 강습도  
열리고 있으니 겨울을 기다려 왔던 여행자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30번지  
홈페이지 : <http://www.yongpyong.co.kr>

고도가 높고 기온차가 심한 대관령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겨  
울이 되면 3m 이상의 눈이 내리기도 하니 예전  
에 외출을 위해 설피를 신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대관령이라서 오히려 살맛난다(?)는 녀  
석의 있으니 바로 황태다. 그리고 그 황태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황태덕장인데 이곳에서는  
명태를 말려 양질의 황태를 만들고 있다.

황태덕장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대관령 횡계지역인데, 바로 이곳에  
40년전부터 이어져온 ‘삼신 황태덕장’이 있다.  
평안도 출신의 덕주(황태덕장의 주인) 어른신이  
직접 가꾸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말 그대  
로 황태 세상이 펼쳐진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황태  
촌’을 이루고 있는데, 그 풍경이 또한 예사롭  
지 않다.

여기에 눈(雪)이 더해지면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겨울 풍경화 한 폭이 그려지는데, 이때부  
터가 황태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때라고  
덕주 어른님께서 귀뜸을 잊지 않으신다.

최근에는 온난화로 인해 국내연안에서 잡히는  
명태보다는 원양어선이 시베리아 캄차카 부근이  
나 일본 근해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잡아온  
명태들이 황태로 변신한다고 하는데, 덕장을 돌  
러보며 어느 황태가 시베리아에서 온 것이고 어  
느 황태가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온 것인지 맞춰  
도 보고, 덕장에서 판매하는 양질의 황태도 한  
아름 안고 돌아오면 어떨까.

전국으로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이 없거  
나 돌아오는 길이 멀어 빈손으로 온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60-6

전화 : 033)355-5041 교통 - 평창문화관광포털  
[http://www.yes-pc.net/letsgo/map/map\\_01.asp](http://www.yes-pc.net/letsgo/map/map_01.asp)

먹거리 - 황태요리 전문점 ‘노다지’

구슬은 서말이 있어도 꺾어야 보배라고 했다.  
황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맛깔스럽게 요리하  
지 않는다면 황태는 그저 황태일 뿐이다. 하지  
만 횡계리에 자리한 황태요리 전문점 ‘노다  
지’에서라면 황태는 보배가 된다.

대관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보배들은 ‘황  
태찜’, ‘황태구이’, ‘황태국’ 등의 이름으  
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근  
의 덕장에서 직접말린 신선한 황태를 사용해서  
겨울의 별미를 제공한다.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45-40  
전화 : 033)335-4448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